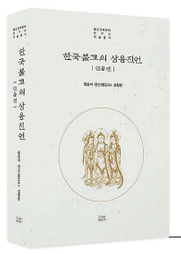
입으로만 하던 진언, 그 뜻도 알아야



한국불교의 상용진언 –단문편
정승석 · 연산(황갑수) · 성청환 지음
조계종출판사 / 3만2천원

한국불교 상용 진언 중 215개 선별
의미와 출처, 연원 등 본격 고찰해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 이해하고
불교 의례 연구 확장에 기여 기대



운문사 새벽예불 모습.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진언은 부처님의 법이라는 깊고 큰 뜻을 짤막한 구문으로 함축하기 때문에 진언을 번역하는 것으로는 부처님 법의 뜻을 결코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일찍이 〈정법화경〉 '총지품'에서는 진언을 번역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응축한 진언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때 수행과 신앙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불교의 상용진언〉은 한국불교에서 주로 상용되는 진언 중에서 215개를 선별해, 그것들의 의미와 출처, 연원 등을 고찰한 책이다. 이제까지 국내에서는 진언을 이처럼 본격적으로 연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출간의 의미는 작지 않다.

책은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교 의례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책은 '진언·주·다라니' '용도별 진언 분류' '종자 일람'으로 구성했다.

△'진언·주·다라니'에서는 진언들을 명칭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진언을 표기한 한자와 우리말 독음은 한글 〈진언집〉에 의거해 표기했다. 그리고 진언의 범문을 고전 범어와 합치하는 표기로 전환하여 제시한다.

△'용도별 진언 분류'에서는 진언들의 기본 용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현재의 상용 의례에서 상용되는 진언들을 가급적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에 부합하도록 6가지로 분류해 소개한다.

△'종자 일람'에서는 책에서 고찰한 진언의 용도에 국한하여 종자가 함축하거나 상징하는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불교에서 각종 재(齋)를 비롯하여 예불과 법회 등의 다양한 의식은 거의 예외 없이 주문을 읊으면서 진행된다. 사실상 불교의 규범적 의식에서 주문은 필수 요소이므로, 주문 없이 진행되는 의식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주문'은 세간에서 통용되는 말이고, 불교의 일반어로는 진언(眞言)이며, 이보다 더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라니(陀羅尼)이다. 진언과 다라니는 통틀어 '주(呪)' 또는 지혜라는 의미의 '명(明)'으로 불릴 뿐만 아니라, 미묘하게나마 구분할 수 있으나 그 구분이 그다지 엄밀하지 않다. 요컨대 주, 진언, 다라니는 장황하거나 다양하게 설명되는 진실을 간결하게 함축하여 일깨우는 '지혜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불교에서 진언은 글자 그대로 '진실한 말'인 만큼 반복하여 암송함으로써 그 말에 상응하는 효과와 위력을 발휘한다고 믿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언은 삼매의 경지에 몰입하는 관상(觀想)의 수단이다. 진언을 암송하는 것은 특히 부처님의 법을 진리로 기억하여 간직하는 정신 집중의 과정이다. 이 때문에 진언은 기억하여 간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다라니'로 불린다.

〈한국불교의 상용진언〉 출간의 의미는 그동안 진언의 해석이 무의미하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진일보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 대중의 의중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은 불교 의식에 참여하면 할수록 다라니, 즉 진언이 어떤 의미로 의식에 사용되는지 궁금해진다는 것이다. 진언들은 해당 의식의 전반적인 취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불설고왕관세음경주석〉에서는 이 같은 궁금증에 부응하는 예를 볼 수 있어 흥미롭다. 대부분의 진언들에서 볼 수 있는 '사바하(娑婆訶)'는 범어의 발음을 한자로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불설고왕관세음경주석〉의 저자는 娑婆訶의 각 글자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바하에서 '사'자는 언설이 없음을 의미한다. '바'자는 일체법이 평등함을 의미한다. '하'자는 일체법은 원인이 없고 적정하여 머무는 곳이 없으며 청정하여 불생불멸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설명은 범어 사바하의 실제 의미와는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바하'를 맹목적으로 되풀이하는 대중에게는 위의 설명이 결코 무의미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함으로써 '사바하'를 독송할 때마다 무상(無常)이나 공(空)의 교리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진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상용 진언들의 출처나 연원을 밝힌다는 책의 취지는 설득력을 갖는다.

이 같은 결실은 의례를 설행하는 스님들과 의례에 동참하는 신도들에게 진언의 심오한 뜻과 가치에 가까이 다가갈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학자들에게는 불교 의례 연구의 넓이와 깊이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사 명상으로 눈부신 하루를…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
글 법상 스님 · 그림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 2만원

필사를 통해 명상을 한다.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108 필사 명상〉은 108일 동안 필사를 통해 하루에 법문 하나를 마음에 새기는 기도 명상집이다. 법상 스님의 짧은 법문 한 편을 읽고, 이어지는 필사 면에서 필사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긴다.

저자는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냥 읽기만 하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자기 분별의식의 필터로 걸러서 왜곡해 받아들이기에,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쓰면서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으로 거름 없이 흡수하는 '필사명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4가지 주제의 이야기 명상과 함께 필사 명상을 통해 사유가 깊어지고, 있는 그대로의 가르침이 분별함 없이 심연의 지혜에 가닿을 수 있게 도와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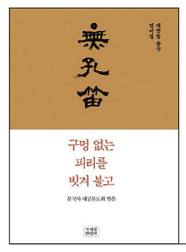
저자인 법상 스님은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통해 16만 구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자상하면서도 파격적이고, 쉬우면서도 강력한 이야기로 많은 이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있다. 매주 실시간으로 열리는 법상 스님의 정기 법회는 매회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하는 마음공부의 공간으로, 대중은 스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삶의 변화를 느낀다고 한다.

법상 스님은 "이 책을 읽고 필사하는 분들이 다만 한 구절에서라도 삶을 변화시키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일기일회의 시절 인연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 책과 함께 하루 10분씩이라도 읽고 쓰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돌볼 수 있다"고 말한다.

법상 스님은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를 공부하다가 도문 스님을 은사로 발심 출가한 뒤 오랜 세월 깨달음을 찾았다. 20년 남짓 군승으로 재직하며 군인들에게 마음공부를 전했고, 동시에 인터넷 마음공부 모임인 '목탁소리'를 이끌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원회 상주 대원정사와 해운대 목탁소리 주지로 있으며, 유튜브 '법상스님의 목탁소리'를 운영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시간 흘러도 변치 않는 가치의 법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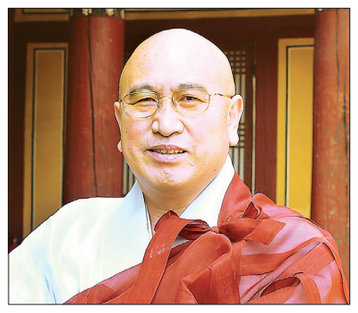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
종상 스님 지음
불국사 대궁문도회 엮음
조계종출판사/3만5천원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며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라!"

불국사 회주 대궁당 종상 대종사〈사진〉가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가르침이다. 대종사는 2024년 11월 8일 법랍 60년, 세납 76세를 일기로 원적에 들었다. 이제 대종사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대신 대종사의 가르침이 더욱 선명하게 우리 곁에 남아 있다.

대종사의 49재를 맞아 스님의 가르침과 법문을 결집한 법어집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가 그것이다. 대종사가 원적에 들기 전 사보, 잡지,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했던 법문들을 모았다. 대중들이 일상에서 겪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쉽고 간명하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



종상 대종사 법문집 출간
신문 등에 전했던 법문 모아
불교적 대안 법문 가치 여전

책은 제1장 '밑이 없는 배를 저으며', 제2장 '구멍 없는 피리를 빗겨 불고', 제3장 '끝이 없는 공양을 베풀며', 제4장 '생멸이 없는 말을 설한다'로 구성했으며, 부록에는 대종사의 행장과 삶의 흔적이 담긴 사진, 영결식·유품 사진도 수록했다.

책 속의 법문들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수행적 해법과 불교적 대안을 담고 있어 오늘의 대중에게도 큰 가르침으로 다가온다. 불국사 대궁문도회 성행 스님은 이것이 출간의 가장 큰 취지라고 했다. 책 속에는 성평등, 자녀 문제, 고령화, 지구온난화, 빈부격차 등 여전히 지나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대안과 수행자의 자세 등이 담겨 있다.

"미움도 싫어함도 깨끗이 씻어버리니 / 헐뜯고 칭찬함이 어디에 붙겠는가 / 초연히 생사를 해탈하니 / 금까마귀 하늘 뚫고 날아가네" 대종사는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임종게를 남겼다. 대종사의 몸과 마음으로 종단과 불자들을 위해 기울인 헌신과 전법, 나눔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화합을 비추는 영원한 등불로 기억될 것이다.

종상 대종사(1948~2024)는 어린 시절부터 생사의 문제와 무상의 신속함을 깨닫고, 진리를 구하고자 깊은 구도의 여정을 시작했다.

종상 대종사(1948~2024)는 출가 이후 월산 스님으로부터 수행자의 자세와 선수행의 근본 원리를 수학하면서, 계정혜를 준수하는 삶과 수심의 중요성을 깨우쳤다. 1973년 석암 화상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 1974년 법주사 강원에서 대교과 과정을 마쳤다. 1975년부터 불국사 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중의 살림을 책임졌다. 1980년에는 조계종 총무원 조사국장에 임명됐다. 이후 중앙종회 의원으로 선출됐다. 2020년에는 중앙승가대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9년 BBS불교방송 재단 이사, 2013년 BTN 명예이사를 역임했다. 더불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국사의 가치를 한층 높였다. 2021년 대종사 법계를 수지했으며, 2022년 원로회의 의원으로 임명됐다. 2024년 법랍 60년, 세납 76세를 일기로 불국사 정혜료에서 원적에 들었다. 박재완 기자

불자들이 주고받는 품격 있는 선물!

40년 전통, 불서출판의 명가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 시리즈는 특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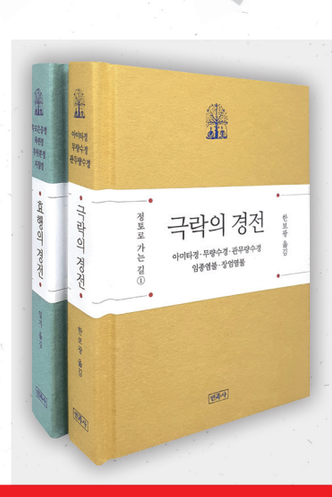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경전 법보시야 말로 최상의 공덕입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1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화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2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3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